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환경마크인식을 중심으로-

최 은 미*(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간사)

이 승 신 (건국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환경친화상품의 생산과 소비 촉진의 대표적인 수단인 환경마크 인식이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서울(강남·강북), 경기도(부천·일산), 대전,부산의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3년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2주일에 걸쳐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 400부 중 30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program을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환경의식, 환경마크 인식,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살펴보았다. 주부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환경친화적 소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t-test 및 일원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추후검증으로 DMR검증(Duncan's Multiple Test)을 실시하였다.

환경의식, 환경문제심각성, 환경마크 변수에 따른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사용하였고, 사회경제적 특성 및 환경의식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변수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살펴 본 후 서로 관계가 높은 것을 제외하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 소비자의 환경의식의 평균을 살펴보면, 4.32(86.4/100)으로 나타났으며, 주부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마크 인식을 살펴보면, 환경마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2.21(73.6/100)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주부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환경의식, 환경문제 심각성 변수에 따른 환경마크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환경마크인식 수준은 사회경제적 변수에서는 주거유형과 거주지역이, 환경변수에서는 환경의식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파트에 살고 거주지역이 대전이며, 환경의식이 높은 주부 소비자가 환경마크 인식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의 평균을 살펴보면, 3.56(71.2/100)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이것을 구매행동과 사용행동 처분행동을 나누어 보면, 구매행동은 3.66(73.2/100), 사용행동은 3.13(62.6/100), 처분행동은 3.86(77.2/100)으로 나타나 처분행동에서 가장 많은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주부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대한 관련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전체 소비행동은 주거유형, 환경의식, 생활환경 심각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환경의식이 높을수록, 생활환경 심각성 인식이 높을수록 전체 소비행동은 증가하였다.